



양현종 해외 진출 운명의 시간 D-8

‘도전’에 방점을 찍은 양현종의 빅리그 시계가 20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재취득한 양현종의 시선은 해외로 향해 있다. 앞서 양현종은 KIA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선수로 군림하면서 우승도 이뤘고,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MVP 트로피도 들어 올렸다. KBO 리그에서 이룰 것 다 이룬 양현종에게는 마지막 목표 ‘빅리그’가 남아있다. 마지막 도전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양현종은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해외 시장도 경색됐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관심을 보이는 팀들과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서로 된 정식 오퍼가 있다면 이를 놓고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한다”며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계약 규모라든가 조건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양현종의 도전 의사가 확고하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도전하겠다는 뜻이 강하다. 이에 맞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올해 한국 나이로 34세다.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일이 양현종의 거

지난해 11승 기대 못미친 성적
코로나 악재에 해외 시장도 경색
올 34세... 현실적 마지막 도전

20일엔 팀 결정돼야 시즌 준비
KIA, 선수 의사 존중... 선택 기다려

취가 결정되는 디데이가 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미국, 일본, KBO 어디에 속하게 되든 20일 정도에는 결정돼야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에 진출하게 될 경우 이때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비자 문제, 자가격리 문제 등을 포함해서 시즌을 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KIA를 위한 테드라인이기도 하다.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도 죄송하다. 당장 2월 1일 스프링캠프가 시작된다. 해외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캠프에 이상 없이 참가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일이다”고 설명했다. KIA도 일단 양현종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KIA 관계자는 “에이전트 측에서 20일 전후로

거취를 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지만 해외 진출이 선수의 오랜 꿈이니까 우리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며 “해외에 나가면 선수가 꿈을 이뤄서 좋은 것이고, 국내 잔류를 선택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면 팀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양현종은 훈련을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까지 만나 난관에 봉착한 양현종에게는 해외 무대를 위한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없다. 코로나19로 해외시장이 불확실한 만큼 ‘단년 계약’으로 1년의 준비시간을 거친 뒤 다시 큰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단순한 경우의 수는 아니다. 양현종의 의지가 중요하고, 1년 뒤 해외시장을 마냥 낙관할 수만도 없다. 최 대표는 “선수의 해외 도전 의지를 생각해보면 팬층은 구상인 것 같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 선수가 이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도전하겠다는 뜻이 강해서 무조건 올 시즌에 맞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KIA도 “계약 형태에 따라서 선수의 해외 진출은 가능할 수는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호영 감독 눈도장 찍어라

광주FC 29일까지 남해서 전훈... 육석 가리기 돌입

광주FC가 남해에서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시작한다. 광주가 11일 2차 전지훈련지인 남해 스포츠파크로 떠났다. 12월 28일부터 광주에서 진행된 1차 동계훈련에서 광주 선수단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 훈련 등을 하며 기초 체력과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몸만들기에 주력했다. 2차 전지훈련 남해에서는 조직력과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새로 광주 지휘봉을 잡은 김호영 감독의 ‘육석 가리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호영 감독은 “추운 날씨와 폭설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선수들의 의지 덕분에 1차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력이다. 많은 이야기와 소통을 통해 더 단단한 원팀을

만들 것이다”고 2차 전훈에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무한 경쟁’도 예고했다. 김호영 감독은 “정해진 베스트11은 없다. 이번 전지훈련에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를 줄이고 무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6면으로 이루어진 큐브를 맞추기 위해선 처음엔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한 면씩 차근차근 맞추다 보면 곧 완벽한 큐브를 완성하게 된다”며 “기존 선수들과 영입 선수들의 최상의 조합을 찾고, 전술적 완성도와 함께 경기력 향상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29일까지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소화한 뒤 내달 1일 여수로 장소를 옮겨 2021시즌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프계도 등 돌린 트럼프

美 프로골프협, 트럼프 소유 클럽서 열린던 대회 개최지 변경키로

극력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을 부추겨 사면 초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비교적 우호적이던 골프계에서도 외면받을 조짐이다. 미국프로골프(PGA of America) 챔피언십을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11일(한국시간)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22년 대회 개최지를 변경하기로 했다. 2022년 PGA 챔피언십 개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한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었다. PGA 챔피언십 개최지는 2024년까지 정해져 있는데, 2022년 개최지만 바꾸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협회가 PGA 챔피언십 개최지를 전격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2022년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회장을 방문하는 등 대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미국프로골프협회는 밝혔다. 박성현(28)이 우승한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US여자오픈이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란스러운 행차에 대회 주최 측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임성재 ‘PGA 톱 5’ 새해 출발

센트리 토너먼트 21언더파 공동 5위... 올 시즌 기대감 높혀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에서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7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7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젠더 쇼플러(미국)와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인 해리스 잉글리시(미국·25언더파 267타)와는 4타 차다. 이로써 임성재는 지난해 11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준우승 이후 2020-2021시즌 두 번째 톱10에 진

입했다. 2020년 투어 대회 우승자와 2019-2020시즌 투어 챔피언십 출전자 등 42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이 대회에 임성재는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 우승에 힘입어 처음으로 출전, 상위권 성적을 남기며 새해의 기대감을 높였다.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5위로 4라운드에 나선 임성재는 1번 홀(파4) 홀에 들어갈 뻔한 날카로운 두 번째 샷을 앞세워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2~3번 홀 연속 보기로 기세를 잊지 못했다. 5번 홀(파5) 투은 두퍼트 버디로 만회했지만, 전반엔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우승 경쟁에선 다소 멀어졌다. /연합뉴스

한때 10위 밖으로 밀려났던 임성재는 13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1.5m 남짓한 곳에 붙여 후반 첫 버디를 잡아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고, 16~18번 홀에선 연속 버디로 뒷심을 발휘하며 순위권 끝을 올렸다. 잉글리시는 호킨 니만(칠레)과의 연장전 끝에 PGA 투어 새해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013년 6월 세인트루드 클래식, 그해 11월 OHL 클래식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우승 갈증을 풀 잉글리시는 우승 상금 134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획득했다. 임성재와 같은 조로 경기한 토머스는 마지막 날 7타를 줄여 3위(24언더파 268타)에 올랐고, 파머는 4위(23언더파 269타)에 자리했다. 브라이슨 디설퍼와 콜린 모리카와(이상 미국), 윤람(스페인)은 공동 7위(20언더파 272타),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공동 11위(18언더파 274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호날두 또 새역사

15시즌 연속 15골... 유럽 5대 리그 유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올 시즌 정규리그 15호 골을 쏘아 올리며 새 기록을 썼다. 호날두는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수올로와 2020-2021 세리에A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썩기 골을 터트리며 유벤투스의 3-1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후반 47분 다닐루가 뒤에서 길게 넘겨준 패스를 받은 그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올 시즌 정규리그 15호 골. 호날두는 리그에서 2위 로멜루 루카쿠(인 터밀란·12골)와 격차를 벌리며 여유롭게 득점 선수를 유지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7골을 넣은 2006-2007시즌을 시작으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거쳐 세리에A에서 뛰는 현재까지 매 시즌 15골 이상

의 득점을 올렸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유럽 5대 프로 축구 리그에서 15시즌 연속 15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호날두가 유일하다. 더불어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는 개인 통산 759골(클럽 657골·A매치 102골·이하 친선전 득점 제외)을 기록 중이다. 현역 시절 757골(클럽 680골·A매치 77골)을 작성한 ‘축구 황제’ 펠레를 뛰어넘었고, 759골(클럽 730골·A매치 29골)로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세운 오스트리아 출신 골잡이 요세프 비칸(2001년 사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다만 비칸의 득점 기록은 해외 매체별로 차이가 난다. 국제스포츠통계재단(RSSSF)은 비칸의 개인 통산 득점을 805골 이상으로 기록한 반면 브라질의 ‘플라카르 매거진’이 2019년 4월 집계한 통계에는 759골로 나온다. 유벤투스는 이날 후반 5분 다닐루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8분 뒤 사수올로에 동점 골을 내줬으나, 후반 37분 애런 램지의 결승 골과 후반 47분 호날두의 썩기 골로 승리를 매조졌다. 최근 3연승을 달린 유벤투스는 리그 4위(승점 33)에 자리했다. /연합뉴스